**에스더**

**제목, 저자, 기록연대**: 주인공 에스더(‘별’이라는 뜻)의 이름을 따름. 저자는 미상이나, 책의 내용으로 볼 때, 그리고 예루살렘에 관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 수산 성에 사는 유대인이 기록한 것으로 본다 (모르드개라는 설이 있음). 아하수에로 왕(주전 486-465) 제12년(주전 474)에 일어난 사건이므로 (그 직후에 기록된 것으로 본다. 그를 이은 아닥사스다 때(465-426)에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(단, 스 1-6은 에스더보다 앞서 고레스 왕 때(주전 537-536)에 일어난 귀환이다).

**주제**: 대적의 위협으로 위기에 놓인 유대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주권과, 이 사건으로 인해서 부림절이 제정된 경위를 설명하고 있다.

**특징**: 네 사람의 등장인물과 완벽한 구성으로 이루어진 이야기로 페르샤 제국에 흩어져 살던 유대민족의 구원을 그리고 있고, 그 내부 구성으로 모르드개의 이야기가 나온다 (베냐민 지파 대 아말렉의 대결, 삼상 15장의 사울과 아말렉 전투와 대조된다). 열 번의 궁중 잔치나 요셉의 경우와 비슷한 궁중 이야기 등 흥미로운 문학적 특징을 많이 띠고 있다.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이 중요한 특징이나, 모든 줄거리의 배후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과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섭리를 볼 수 있다. 요셉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에스더는 하나님의 신비스럽과 은혜로운 활동의 좋은 예를 보여 준다. **교훈**: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.

**개요**

I. 아하수레로의 잔치 (1-2장)

가. 왕후 와스디의 폐위 (1장)

나. 에스더가 왕후로 세워짐 (2:1-18)

다. 모르드개가 왕의 암살 음모를 발견 (2:19-23)

2. 에스더의 잔치 (3-8장)

1. 하만이 유대인 멸하려는 음모를 꾸밈 (3장)
2. 모르드개가 에스더를 설득함 (4장)
3. 에스더의 첫번 잔치 (5장)
4. 모르드개가 존귀하게 됨 (6장)
5. 에스더의 두번째 잔치와 하만의 처형 (7장)
6. 에스더가 유대 민족을 위해 왕을 설득함 (8)

3. 부림절 (9-10장)

1. 유대인의 구원과 축하 (9장): 부림절 제정
2. 모르드개의 승진 (10장)